

현묘의 사주명리 입문

제 7강

자평명리와 일간

Part 1

Part 2

- 1. 간지의 이해
 - 간지란?
 - 간지의 기호
 - 간지의 이중적 구조
 - 천간과 지지, 음과 양
- 2. 간지의 활용
 - 자리의 문제
 - 운의 해석
- 3. 지지 음양의 이해
 - 지지 음양의 변천
 - 고대의 관점과 근대의 관점 비교
- 4. 주기와 연월일시
- 5. 가짜 사주와 진짜 사주

- 1. 시작의 기준
 - 연주의 구분
 - 일주의 구분
- 2. 팔자 명리학의 형성
 - 이허중명서
 - 연해자평
- 3. 납음오행
 - 납음오행의 형성
 - 납음오행의 의의
 - 납음오행을 통한 간명의 예
- 4. 근묘화실론
- 5. 당사주
 - 당사주란?
 - 당사주 간명 예시

간지의 이해

간지란?

연	월	일	시
1년이라는 주기가 60의 단위로 반복된다	1월이라는 주기가 60의 단위로 반복된다	1일이라는 주기가 60의 단위로 반복된다	2시간이라는 주기가 60의 단위로 반복된다
60년의 주기로 똑같은 기운이 반복	60개월의 주기로 똑같은 기운이 반복	60일의 주기로 똑같은 기운이 반복	120시간(5일)의 주기로 똑같은 기운이 반복

연월일시 모두 60의 주기로 똑같은 기운이 반복된다

= 60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
(사주명리는 결국 60의 학문)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기운의 변화가 60이라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왜 하필 60이라는 숫자일까?

알 수 없다.

목성의 공전주기가 11.9년, 토성의 공전주기가 29.5년으로 목성과 토성의 주기를 결합하면 대략 6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대략 60의 숫자가 나온다는 것으로 간지의 60으로 구분할 수 있는 주기를 설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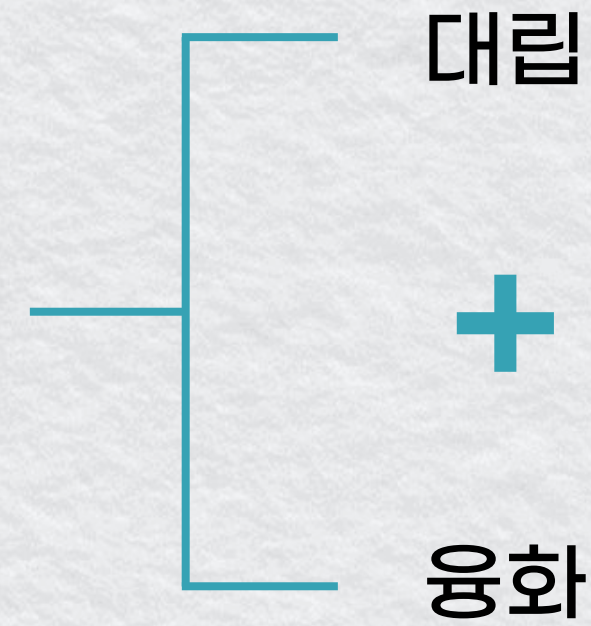


60의 주기성의 반복이 지구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일까? 아니면 태양계?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규칙성일까?

간지의 이해

간지의 이중적 구조

< 이중적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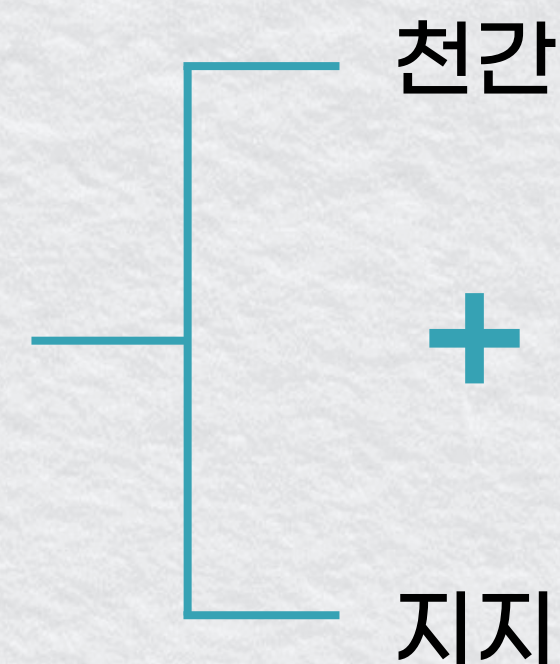
왜 천간 10개, 지지 12개를 만들어서 결합했을까?

인간에게 부여된 우주의 기운이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즉 우주 자체가 <대립과 융화>라는 이중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부여되는 기운도 이중적인 체계로 파악했을 때 본질을 드러낼 수 있음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기운을 최대한 잘 표현하기 위해,
천간과 지지라는 이중 체계를 사용하여 60개의 주기성을 나타내는 간지가 탄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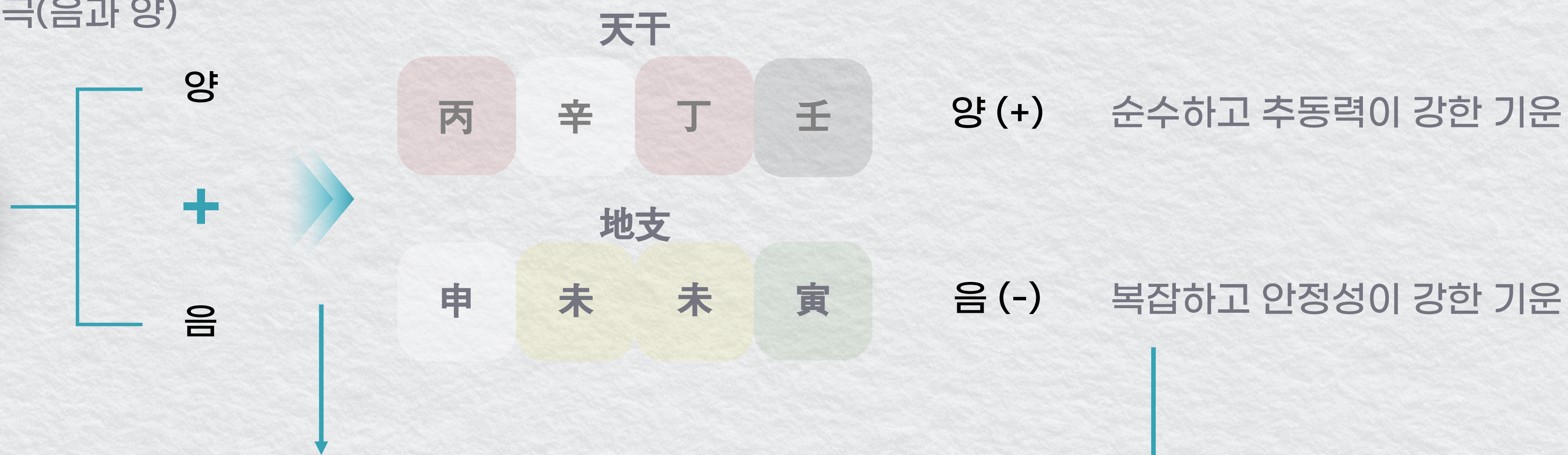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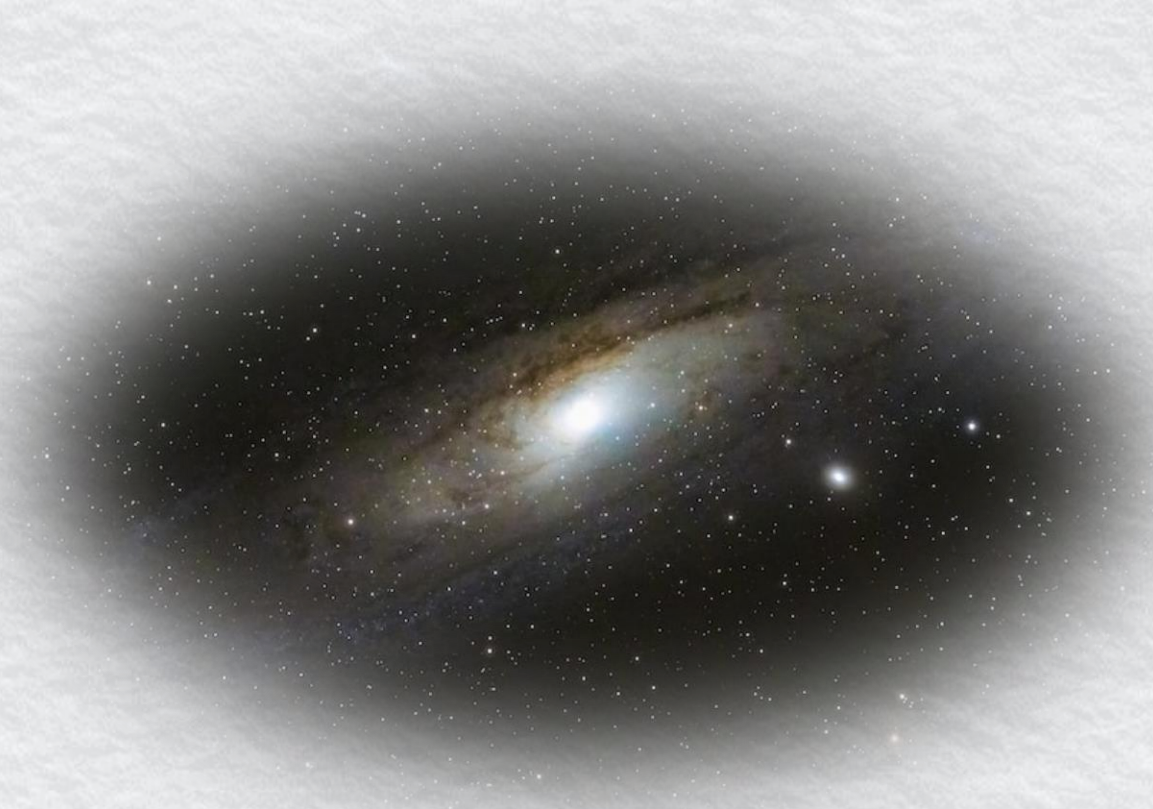
< 이중적 구조 >



간지의 이해

천간과 지지, 음과 양

우주의 이중 체계 = 태극(음과 양)



즉 우주의 모든 만물이 **음양의 이중성에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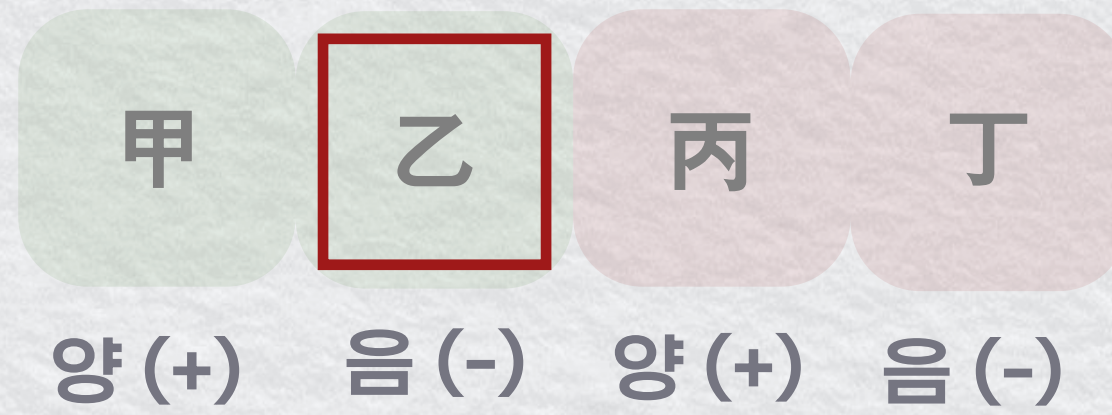
60개의 주기를 표현하는 기호인 **간지도 천간과 지지 두 개로 나뉘져 있음**

하나의 개별 간지는 천간과 지지의 결합,
 즉, 양과 음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음
 우주의 모든 물질(기운)은 음과 양의 결합으로 구성됨
 음양의 결합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음의 역할을 해야 하고,
 하나는 반드시 양의 역할을 해야 함)

간지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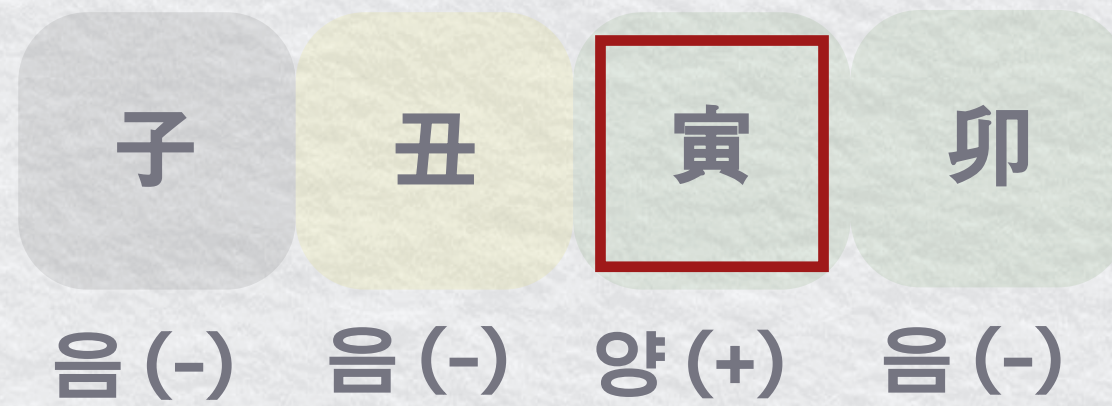
천간과 지지, 음과 양

天干



천간에도 음양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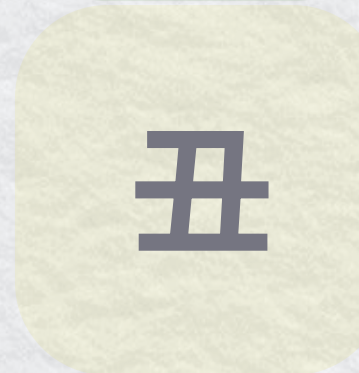
地支



지지도에도 음양이 있고,

간지에도 음양이 있음
모든 것에 음양이 있음

양 (+)



간지

을목은 천간 중에서는 음간이지만, 을축이라는 간지 안에서는 **양의 역할**을 하고 있음.

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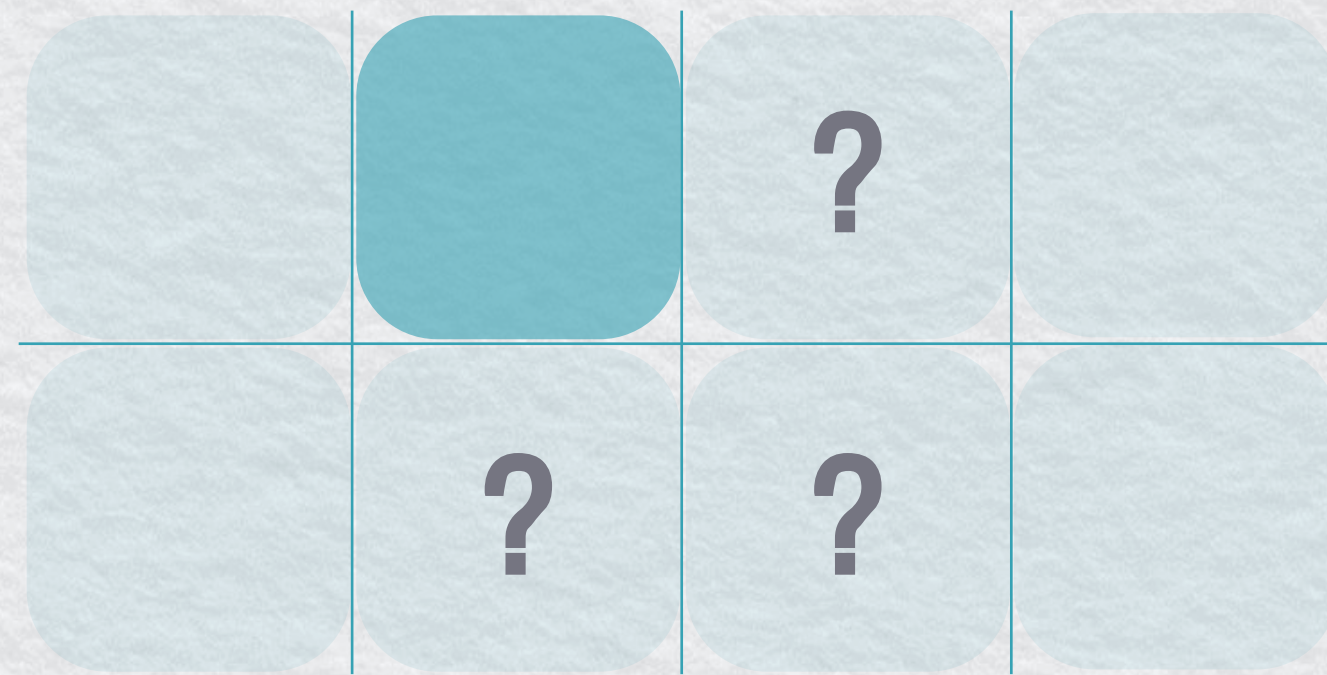
음 (-)

간지

인목은 지지 중에서는 양이지만, 병인이라는 간지 안에서는 **음의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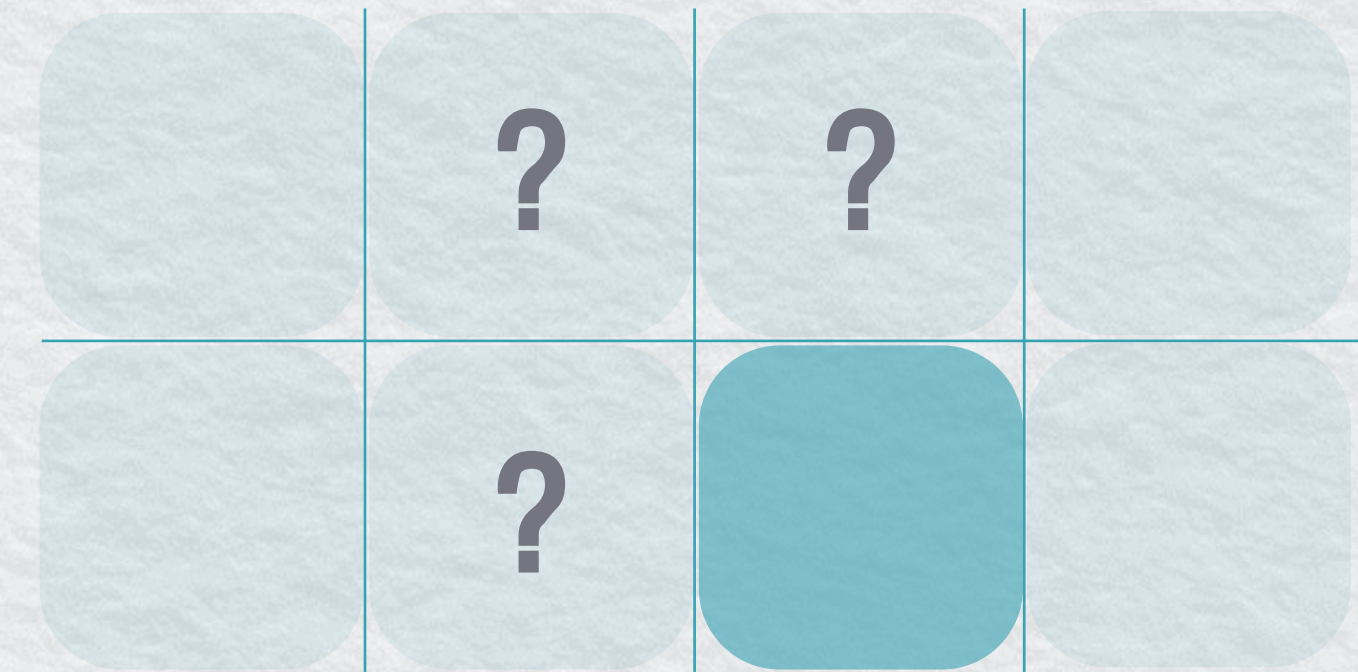
간지의 활용

자리의 문제



일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일지인가? 월간인가? 월지인가?

하나의 간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어디인가?



월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는
일지인가? 월간인가? 일간인가?

1

천간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는 지지이고,
지지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는 천간임

왜 “내 짝궁”이 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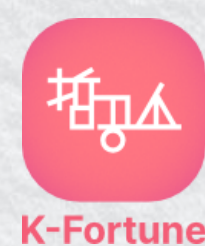
양인 천간은 음의 짝궁인 지지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음.
음인 지지는 양의 짝궁인 천간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음.

2

하나의 천간은 바로 아래 있는 지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함.

3

하나의 지지는 바로 위에 있는 천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함.



간지의 활용 운의 해석

	세운	대운	시주	일주	월주	연주
	●		●	●	●	
	식신	편인	정인	본원	정관	편인
천간 : 양 (+) 추동력	癸	己	戊	辛	丙	己
지지 : 음 (-) 안정성	卯	卯	子	酉	子	卯
	편재	편재	식신	비견	식신	편재

대운, 세운, 월운, 일운을 해석

천간이 양, 지지가 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운의 천간이 추동력을 가지고 있고, 운의 지지가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천간의 기운이 성급하게 일찍 작용하고, 지지의 기운이 뒤늦게 등장해 마무리 한다고 볼 수 있음.

대운의 해석 = 천간의 기운을 초반의 5년, 지지의 기운을 후반의 5년으로 해석함.

세운의 해석.. = 이하동일

월운의 해석..

일운이 해석..

지지의 음양 이해

지지 음양의 변천

지지의 음양은 오행과 지지가 결합할 초창기부터, 양-음-양-음의 순서로 인식되어 왔음.

고대의 관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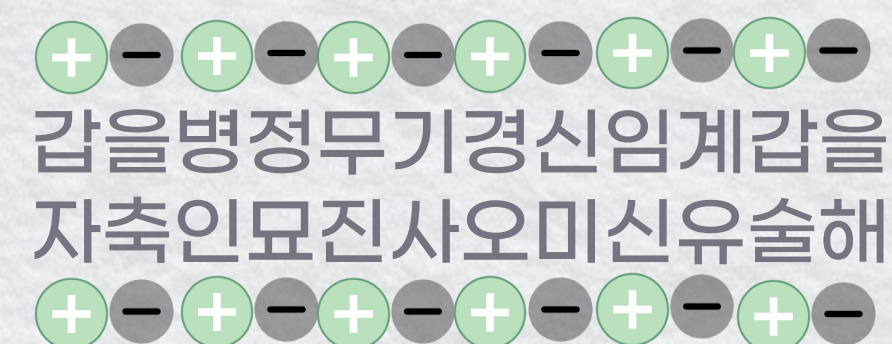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이 명대 후반까지 이어지다가 청대 초 진소암의 명리약언(1640) 이후부터, 지지의 음양이 다음과 같이 인식됨

근대의 관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	-	+	-	+	+	-	-	+	-	+	+

양-음-양-음의 순서로 인식된 이유

1. 천간이 양음양음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지지도 양음양음 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관점
2. 항상 양이 먼저 앞장서야 하고, 음이 뒤따라야 한다는 양존음비 관점
3. 하나의 간지를 이룰 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음양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관점



지지의 음양 이해

고대의 관점과 근대의 관점 비교

고대의 관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	-	+	-	+	-	+	-	+	-	+	-

근대의 관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	-	+	-	+	+	-	-	+	-	+	+

水
癸

火 火
丙 丁

水
壬

고대와 근대 관점의 비교

수, 화에 해당하는 지지만 음양이 바뀜.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설명하기 위해 수와 화는 너무 극단의 기운이므로 **체(몸)와 용(쓰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함

체용이 바뀐다는 것의 의미

겉(몸)은 양(음)이지만, 실제로(쓰임)는 음(양)적인 작용을 한다는 말

하지만 이는 지지의 음양이 바뀐것에 대한 그럴싸한 겉포장이고, 실제로는 이 시기에 명리학의 역사에서 대전환이 이뤄진 것

고대의 명리학 = 지지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이해함

근대의 명리학

= <명대> 지지의 지장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됨

- 지지에 어떤 천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음.

- 따라서 **천간의 음양을 그대로 지지의 정기의 간지에 적용하면 정확한 지지의 음양을 확인할 수 있음.**

새롭게 등장한 지장간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양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상들의 신통함과 영험함에 상처를 내기 싫어서 체용이 바뀌었다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포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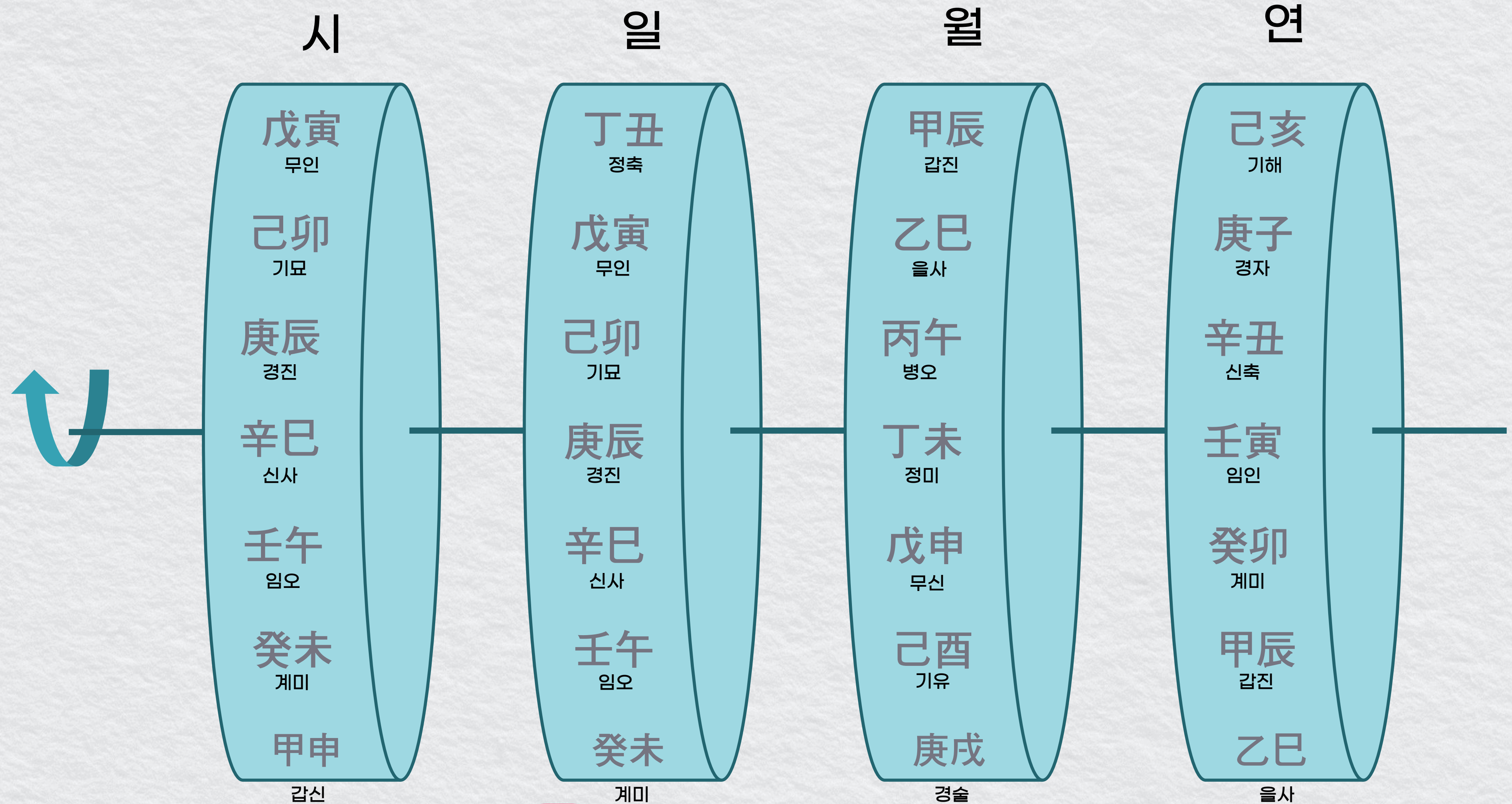
주기와 연월일시

1년마다 변하는 기운
<연주> DAY 365

1월마다 변하는 기운
<월주> DAY 30

1일마다 변하는 기운
<일주> DAY 1

2시간마다 변하는 기운
<시주> DAY 1/12



주기와 연월일시

연월일시의 관계

연으로 향할수록 연하고 광범위한 기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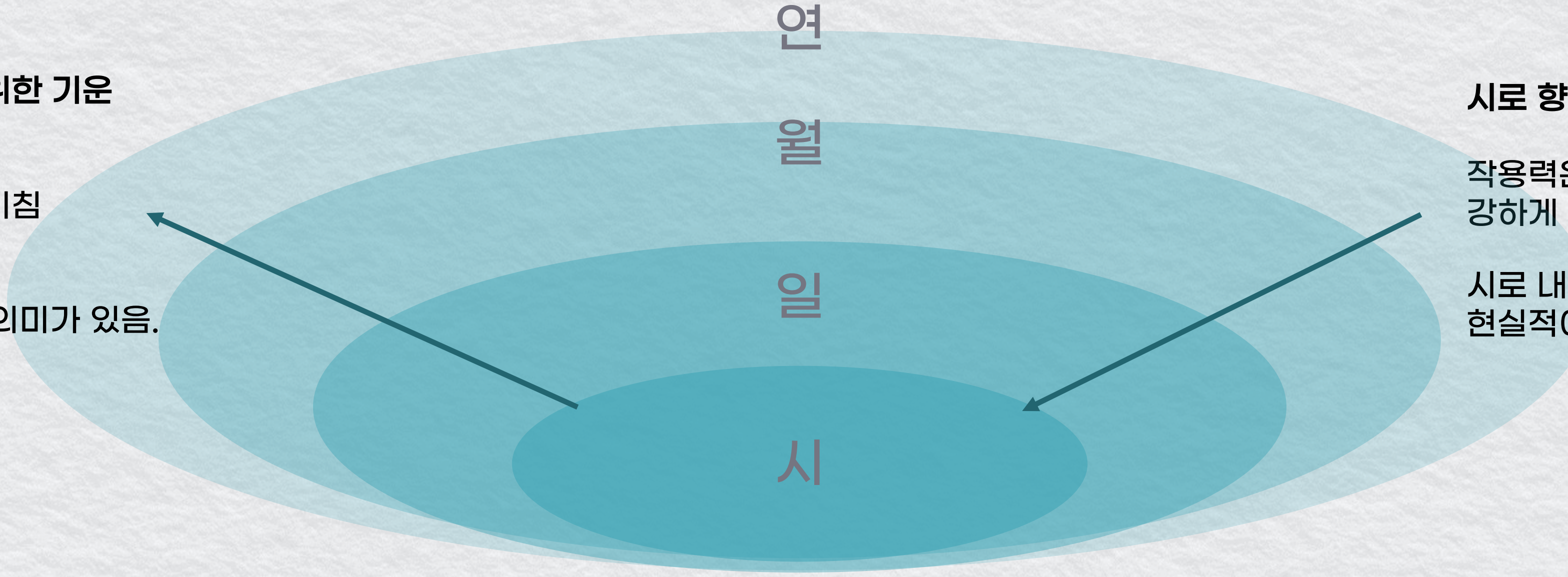
작용력은 작고, 변동성이 없음.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연으로 올라갈수록
근원적이고 잠재적인, 과거의 의미가 있음.

시로 향할수록 강하고 좁은 기운

작용력은 크고, 변동성이 심함,
강하게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침

시로 내려갈수록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미래의 의미가 있음.



* 연월일시로 내려오면서, 점차 주기가 짧아진다는 것의 의미

연월일시의 단계로 기운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연이 월의 바탕이 되고,
월이 일의 바탕이 되고,
일이 시의 바탕이 됨

가짜 사주와 진짜 사주

시	일	월	연
乙	丁	壬	壬
巳	酉	寅	寅

어느 것이
진짜 사주일까?

시	일	월	연
乙	丁	戊	壬
未	酉	子	寅

01

하나의 연에 12개의 월밖에 올 수 없다

월은 연을 따라다닌다

연은 총 60년의 주기로 움직임

월은 총 60개월의 주기로 움직임 = 60개월 = 5년

5년 × 12 = 60년

월이 간지를 한바퀴 도는 단위인 5년이 12번 지나면 딱 60년이 됨
월의 총 주기가 연의 총 주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예시)

임인년에 올 수 있는 월은 항상 고정됨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계축

02

하나의 일에 12개의 시밖에 올 수 없다

시는 일을 따라다닌다

일은 총 60일의 주기로 움직임.

시는 총 120시간의 주기로 움직임. = 120시간 = 5일

5일 × 12 = 60일

시가 간지를 한바퀴 도는 단위인 5일이 12번 지나면 딱 60일이 됨
시의 총 주기가 일의 총 주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예시)

정유일에 올 수 있는 시는 항상 고정됨

경자, 신축,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해



가짜 사주와 진짜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

연과 일이다.
월과 시는 연과 일에 부속되어 있기 때문

연=60개의 간지가 모두 올 수 있음(지구의 공전)
월=12개의 간지가 올 수 있음(연의 팔다리, 공전을 쪼갠것)

일=60개의 간지가 모두 올 수 있음(지구의 자전)
시=12개의 간지가 올 수 있음(일의 팔다리, 자전을 쪼갠것)



사주의 경우의 수는?

시	일	월	연

$$12 \times 60 \times 12 \times 60 = 518,400$$

시작의 기준

연주의 구분 ; 2023년 계묘의 기운이 언제부터 작용할까?

동지세수설

동지 (12월 22일 무렵)부터 작용함

동지에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동지를 지나면서 점차 높아짐

주역의 관점으로 12개월을 보면,
동지에 비로소 1양이 싹틈

입춘세수설

입춘 (2월 4일 무렵)부터 작용함

동지에 양이 시작되지만
하늘의 기가 사람의 기와 상호작용 하는데는
시간차가 필요함
태양이 지구를 달구는데 필요한 시간차
따라서 동지로부터 45일이 지난 입춘에 한해가 시작

주역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인(寅)에서 태어남.
주역 『계사전』
“천개어자(天開於子)요, 지벽어축(地闢於丑)이요,
인동어인(人動於寅)이요, 물생어묘(物生於卯)”

현묘의 관점

지장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축토가 온전한 수렴의 음간들로 이뤄져 있고,
(癸辛己)

인목이 온전한 발산의 양간들로 이뤄져
(戊丙甲)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
인월에 한해가 시작됨.

현재 = 입춘세수설 지지

하지만 720 시리즈를 하다보니 점점 동지세수설에 관심이 가기 시작
현재 연구중

시작의 기준

일주의 구분 ;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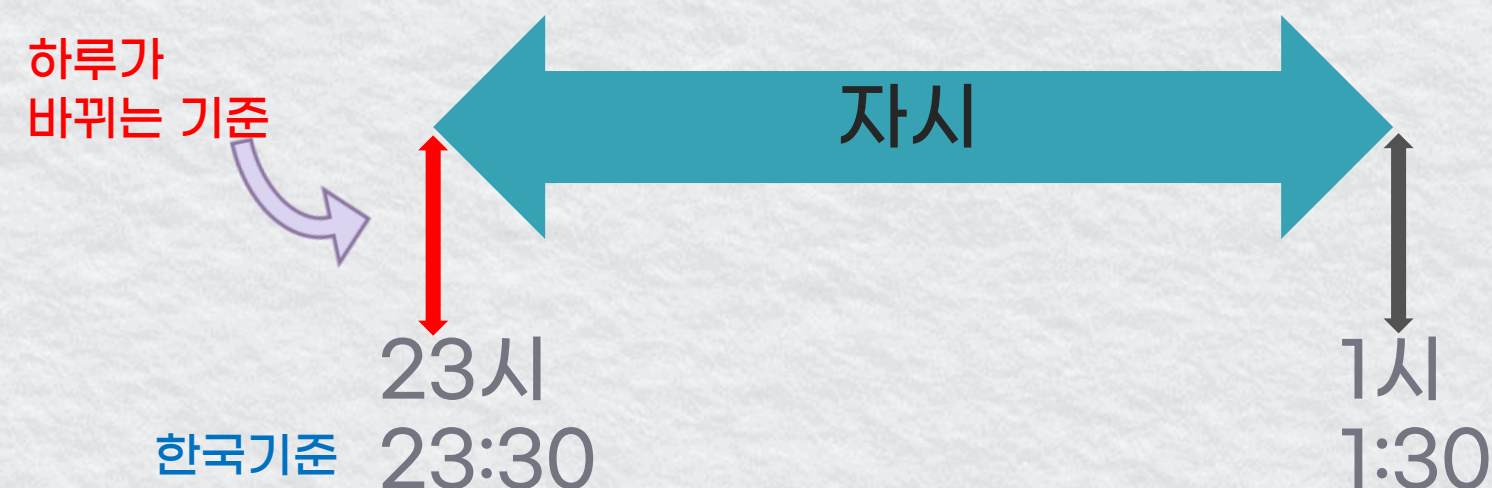
자시(23시)부터 시작

하루의 시작을 밤11시 (자시)로 봄

명리학 고전에 자시를 둘로 나누는 기록이 없음.

자시를 둘로 나누면 하루가 24시간의 체계가 되는 것인데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는 것은 서양의 영향임

야자/조자시의 경우, 일주는 이전 날의 일주를 쓰면서, 시주는 다음날의 시주로 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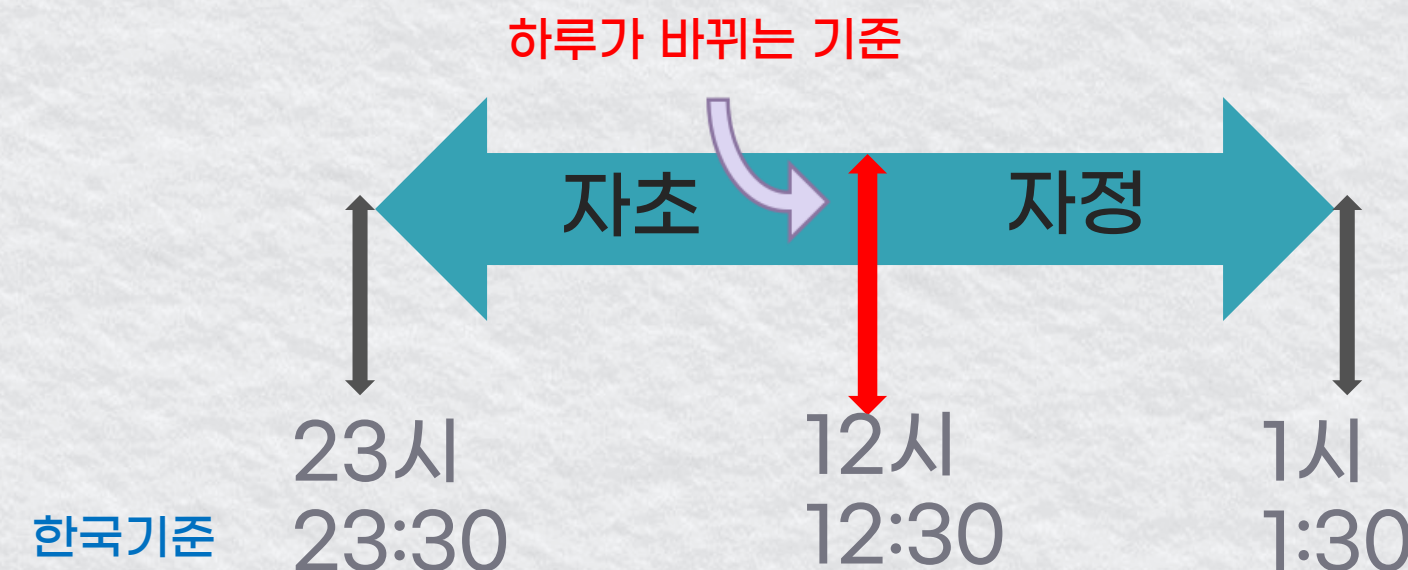
자정(0시)부터 시작

자시의 초기 1시간(자초)은 이전 날에 해당

명리학 고전에는 없지만 다른 문서에는 자시를 둘로 나누는 기록이 많이 등장함.

└ 당대 『신당서』, 남송 『주자어류』, 원대 『혁상신서』, 조선왕조실록에 다수 등장

1시진(時辰, 2시간)을 둘로 쪼개는 것은 송대에 도입되었고, 명,청대에 일반화 됨.



시작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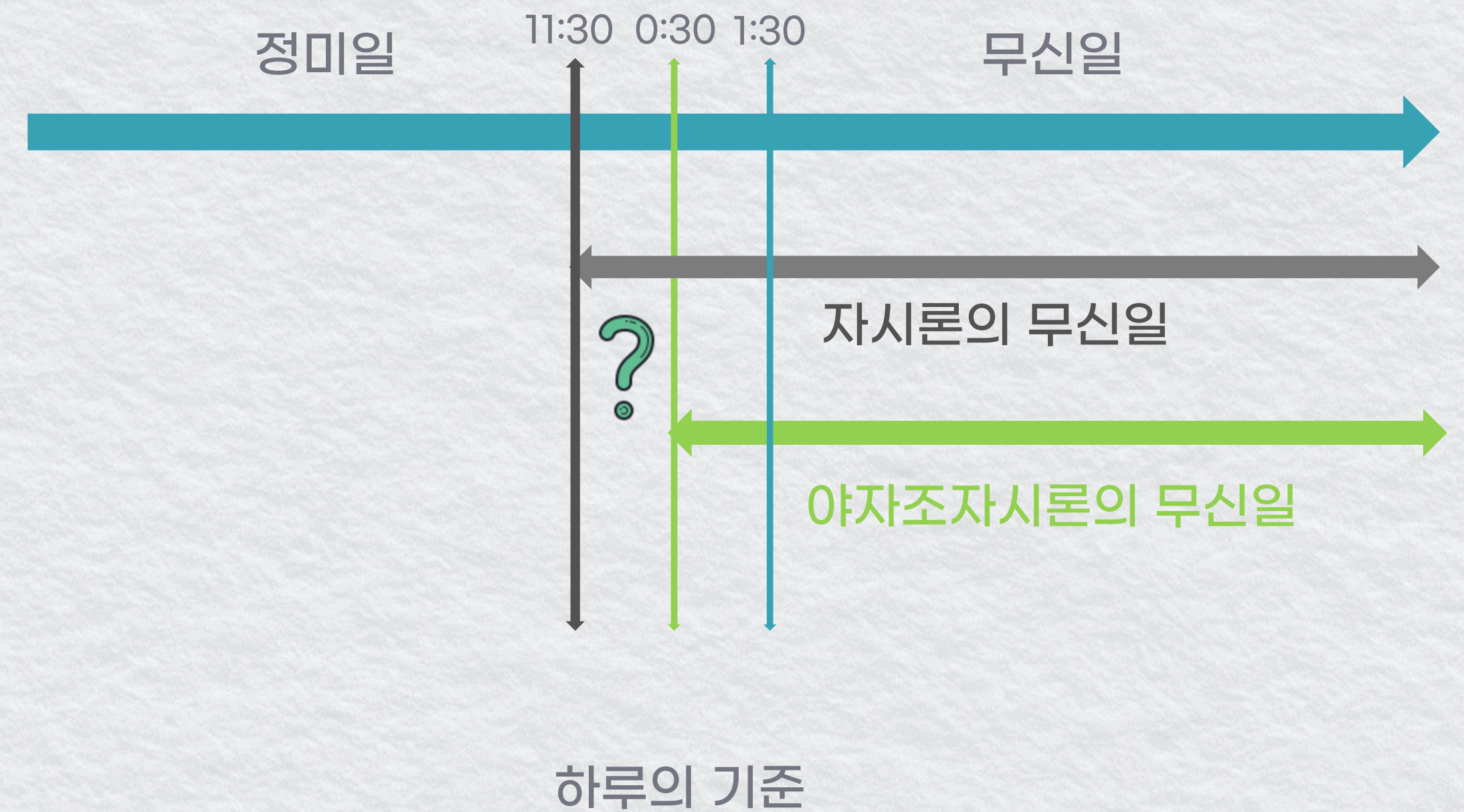
일주의 구분 ;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결국 한국시간으로 **11시 30분~0시 30분**에 출생한 사람의 일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의 문제

	11시30분~0시30분	0시30분~1시 30분
자시	무신일주<임자시>	무신일주<임자시>
야자/조자시	정미일주<임자시>	무신일주<임자시>

*자시 : 다음날의 일주를 따른다.

*야자시 조자시 : 이전날의 일주를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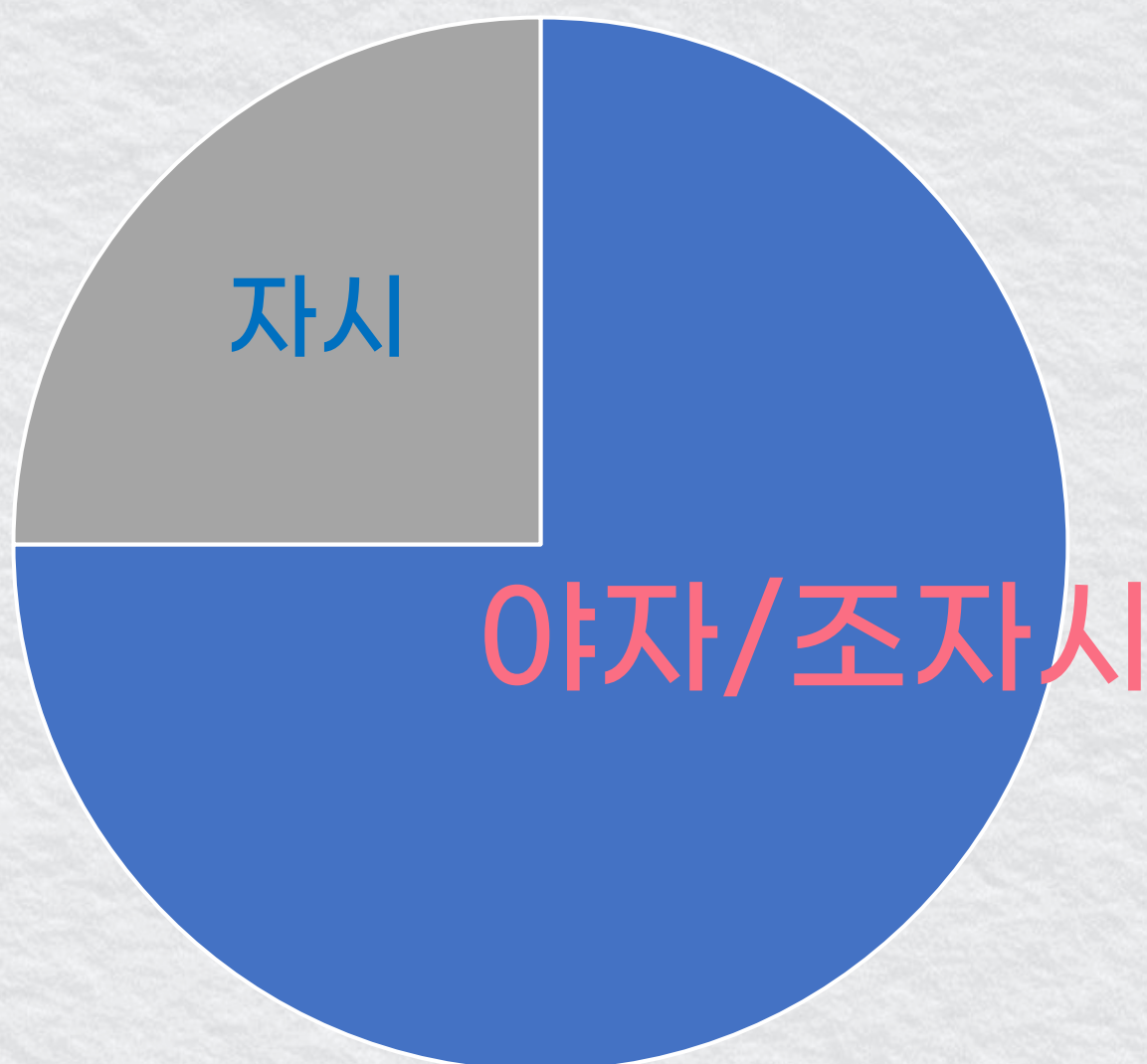


시작의 기준

일주의 구분 ; 하루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현묘의 관점

자시, 야자/조사시 둘 다 고려해야함. 그러나..



일주의 구분 (자시 vs 야자시와 조사시)은
임상의 결과를 쉽게 뽑아낼 수 있음.

따라서 명리학자마다 고유의 관점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입춘세수설과 동지세수설은
임상의 결과를 쉽게 정리하기 어려움.

→ 연주라는 기운의 특이성 때문

일주를 특정하는 것은 상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연주가 바뀌는 것으로 인한 변화는 포착하기가 어려움

더 깊이

자시 vs 야자/조사시

입춘 vs 동지

하루의 시작 기준의 문제와 일년의 시작 기준의 문제는 결국 시주와 월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의 관점차이에서 비롯됨

일주와 시주

연주와 월주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하나의 몸에 12개의 팔이 고정되어 달려있어야 한다.)는 관점에 의하면

자시, 동지를 선택해야 함

일주와 시주, 연주와 월주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는 관점에 의하면

야자/조사시, 입춘을 선택해야 함

더 나아가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와 비열의 차이에 의해 시간차가 발생한다면? **인시, 입춘**을 선택해야 함

또한 자시를 선택하는 입장이라면? 자월의 시작인 **12월 초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된다고 주장해야 함

탐구할 과제는 무궁무진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팔자 명리학의 형성 [이허중명서]

춘추전국 시대

낙록자 “낙록자소식삼명부”의 저자, 명리학의 선조? 근거없음

귀곡자 명리학의 선조? 귀곡산장에 은거함
당시 도사들을 칭하던 말

사마계주 초나라 인물 명리학의 시조? 단순한 점쟁이

230년 경

동한시대 관료

“나의 본래의 명은 寅에 있다.
하늘에는 일정한 수가 있어 이를 어겨서는 안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다.”

1100년 경

『이허중명서』=『귀곡자유문서』

현존하는 최초의 명리학책

이허중 = 당대의 인물
사마계주, 귀곡자 = 전설의 인물

이허중을 따르던 제자들이 송대에 이허중의 이름을 빌어
명리 이론을 모아 책을 발간함.

서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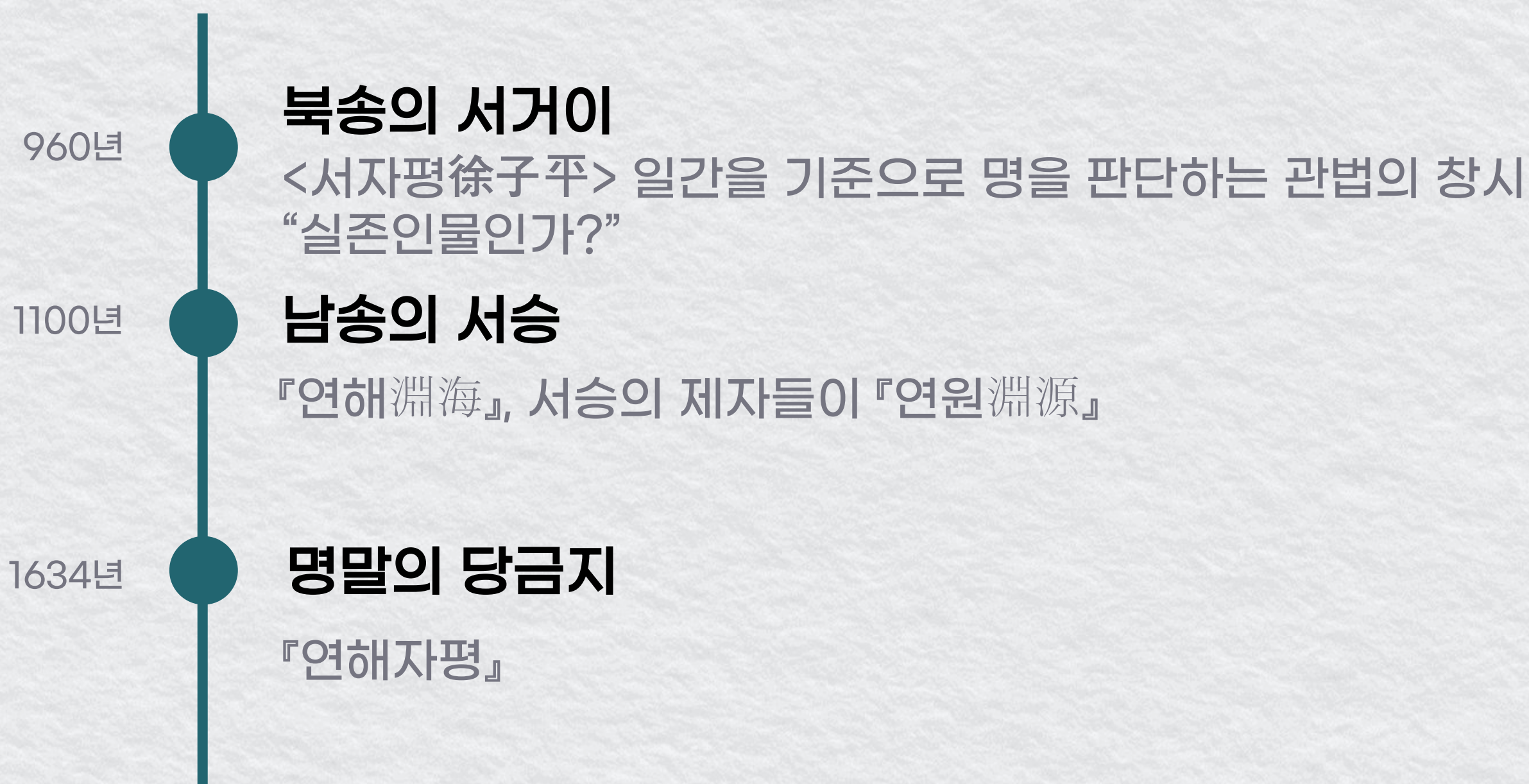
“사마계주가 홀연히 등장한 귀곡자를 만나서 만물의 이치를 밝혀놓았고,
내가(이허중이) 그 책을 입수해 다시금 현대에 맞게 집대성하다.”

이허중명서의 의의

1. 인간의 운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최초의 시도.
(명리학 이론이 정리되어 등장함)
2. 월일뿐만이 아니라 최초로 시간까지 활용해 운명을 추론함.
3. 생년<태>월일시라는 운명을 탐구하는 안정적인 틀을 확보함.
태월일시라는 4주, 혹은 연태월일시라는 5주의 체계 등장
4. 일주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함.
5. 납음오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팔자 명리학의 형성 [연해자평]



연해자평의 의의

1. 태어난 일의 천간을 사주판단의 기준으로 삼음.
2. 연월일시<근묘화실>로 운명을 판단하는 “사주,팔자”의 체계의 완성.
3. 납음오행과 더불어 오행의 관점으로 명을 판단함.
4.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함.
(지지에 담긴 천간을 완전하게 파악함.)
5. 십신의 개념이 완전하게 정립됨
<정관, 식신 등>

현묘의 사주명리는 무슨 학파?

사주팔자의 체계를 사용하며, 일간을 위주로 하고, 십신을 이용해 운명을 감정하는 부류

자평명리, 팔자명리라 부름.

현대의 거의 모든 명리학자는 자평명리학을 한다고 볼 수 있음.
Vs 자미두수 : 송대에 등장, (음력)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별자리로 명운을 판단하는 방법론.



납음오행

납음오행의 형성

납음오행의 형성 원리

납음오행이란?

서한시대 경방이 창안한 간명방법

60간지를 두개씩 묶어서 30개로 만든, 2개의 쌍에 오행을 부여함. 이를 납음오행이라 함.

ex) 갑자, 을축 = 금, 병인, 정묘 = 화, 무진, 기사 = 목 ...

납음오행의 형성배경

서한시대(bc 0~100년)

주역(상수역학<주역의 숫자체계를 통해 이치를 탐구하는 분파>)과 60간지, 음양오행의 사상이 결합한 결과물.

	군주	신하	백성	일	만물
다섯가지 음	궁	상	각	치	우
오행	토	금	목	화	수
과정	토생금	금생수	목생화	화생토	수생목
납음오행	금	수	화	토	목
1	갑자, 을축	병자, 정축	무자, 기축	경자, 신축	임자, 계축
2	임인, 계묘	갑인, 을묘	병인, 정묘	무인, 기묘	경인, 신묘
3	경진, 신사	임진, 기사	갑진, 을사	병진, 정사	무진, 기사
4	갑오, 을미	병오, 정미	무오, 기미	경오, 신미	임오, 계미
5	임신, 계유	갑신, 을유	병신, 정유	무신, 기유	경신, 신유
6	경술, 신해	임술, 계해	갑술, 을해	병술, 정해	무술, 기해

납음오행

납음오행의 의의

납음오행의 의의

1. 주역의 이론과 60간지의 결합
2. 2000년 가까이 운명판단의 주요 기준이 됨
3. 천간과 지지의 개별 오행 보다는 이를 뭉뚱그린 납음오행을 사용하였기에 오행학의 산물이 아닌, 주역의 산물임

납음과 자평명리

납음오행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주역과 명리는 예로부터 혼재되어 있었는데, 근대 이후 등장한 자평명리학의 대두로 인해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음

간지의 음양과 오행만으로 운명을 추론하는 팔자명리(자평명리)와 전통적인 관법을 완전히 구분해야 함

여전히 남아있는 납음오행

연해자평의 등장 이후로 진정한 의미의 간지학(오행학)-간지의 오행을 바탕으로 운명을 추론-이 발달하였지만, 연해자평, 삼명통회에서도 납음오행을 소개하고 있음

현대의 명리학자들조차 납음오행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납음의 영향은 뿌리깊음

납음오행

납음오행을 통한 간명의 예

납음오행을 통한 간명의 예

납음오행	간지	의미	해석	추론
금	갑자, 을축	해중금 海中金	기가 감추어져 있고 이름은 있으나 형체가 없음	왕성한 불꽃의 제련으로 뚝고 나오는 것을 기뻐함
	갑자	보물	스스로 죽는다	금과 나무가 왕성한 곳을 기뻐함
	을축	단단한 광석	스스로 묻힌다	불과 남방의 태양을 기뻐함
수	병오, 정미	천하수 天河水	은하수가 비가 되어 내려 큰 장마를 이룸	흙을 만나면 좋으나 금의 땅에서는 자라기 어려움
	병오	둥근 달	스스로 잉태함	밤과 가을에 금이 왕성한 곳을 기뻐함
	정미	물빛	스스로 자라남	밤과 가을에 금이 왕성한 곳을 기뻐함



*시주에서 연주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극한다
→ 조상을 극하여 죽게 됨

근묘화실론

근묘화실 이론이란?

연월일시의 주기를 인간관계와 시간과 연결지은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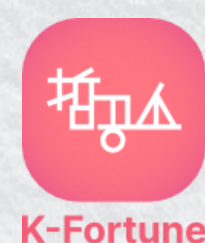
당나라 시대에 크게 유행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송대의 옥조정진경, 이허중명서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타남.

송대 말 연해자평에서 "근묘화실"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하게 틀을 갖추

	시 [실]	일 [화]	월 [묘]	연 [근]
옥조정진경	자손, 하인	형제, 처첩	가문, 부모	조상, 신분
이허중명서	보좌	주축	활용	근본
연해자평	자식	자신, 아내	부모, 형제	조상
현재 활용	60~80살	40~60살	20~40살	0~20살
현재 활용	미래	현재	과거	먼 과거

근묘화실론의 의의

1. 근묘화실의 이론을 통해 일간이라는 기준을 발견하게 됨.
2. 사주의 흐름을 논할 때 연에서 시로 나아갈수록 생하는 구조를 좋게 판단하는 근거가 됨. 80%
3. 운의 작용을 논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도 함. ??
4. 하나의 주가 상위 주에 속해 있는 것의 의미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자.



당사주

당사주란?

당사주란?

도대체 당사주가 뭐고, 당나라때 근묘화실 이론이 나왔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당사주 : 당나라때 유행하던 사주의 관법

방법 : 연월일시의 **지지만을 가지고 운명을 추론함.**

당사주의 의의

1. 12개의 지지의 뜻만 외우면 누구나 쉽게 손가락을 짚어가면 사주를 풀 수 있음.
2. 연이 월을 낳고, 월이 일을 낳고, 일이 시를 낳는다는 근묘화실의 방법론은 근대 사주명리의 토대가 됨
3. 천간을 고려하지 않고 지지만 고려했다는 것은 천간과 지지를 결합한 관법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천성	천귀성	천액성	천권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

당사주

당사주 간명 예시

당사주 보기 예시

2013년 3월 7일 묘시 출생

사년에 태어난 사람은 천문성을 가지고 태어남.

사년 3월에 태어난 사람은 “사”에서 출발하여 3칸 이동한다.
그러면 월에 해당하는 기운은 “미”, 즉 천역성이다.
7일에 태어났으니 “미”에서 출발하여, 7칸 이동한다.
그러면 일에 해당하는 기운은 “축” 천액성이다.
묘시에 태어났으니 “축”에서 출발하여 4칸 이동한다.
그러면 “진” 천간성이다.



* 연월일시에 해당하는 각각의 성들을 해석하면 끝.

[연천문의 해석] : 연에 천문성이 있을 때

년주에 천문성이 들었으니 멀리 이름을 떨치게 된다.
만일에 글공부를 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힘을 쓰리라.
부부궁에서는 사이가 좋으나 한번은 헤어지기도다.
얼굴이 바르고 맑으니 정말 이름이 빛나도다.
조상 천도하여야 앞날이 트인다.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천성	천귀성	천액성	천권성	천파성	천간성	천문성	천복성	천역성	천고성	천인성	천예성	천수성



현묘의 3분 관상

#코와 광대의 관계

A | 코는 나. 자아, 주체성, 중년운

B | 광대는 주변인의 힘, 세력, 원조와 협력



1. A=B

내 힘과 주변인의 힘이 세력을 이뤄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성장함

2. A>B

주변의 힘은 미약한데 비해 본인의 주체성, 자아가 너무 강함
혼자만 잘난사람, 고난과 고독

3. A<B

주변의 원조가 강한데 본인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음.
인덕이 많고, 주변사람에게 베푸는 삶.

코를 키우는 방법 -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한다. 자신감 상승, 주체성 강화,
코의 기운 강화

광대를 키우는 방법 - “은~” 하고 소리내 보자. 즉, 웃자. 웃으면 복이 온다.
주변인의 은덕 강화.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록 “은~”을 많이 해보자.